

스칸디나비아 3개국 및 동아시아 3개국의 정부신뢰 영향요인 비교

Trust in Government and Its Impact Factors in Three Scandinavian Countries and Three East Asian Nations

박희봉*·김동현**

초 록

본 연구는 시민의 정치태도와 정부신뢰의 관계가 정치체제 내에서 시민과 제도 간의 상호관계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국가 간의 일반적인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연구해온 기존 연구를 점검하는 한편, 국가 간의 차별성이 있는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 시민의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비교함으로써 정부신뢰 요인의 국가 간 공통점과 각국의 정치문화와 정치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동아시아 3개국 등 6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정당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정치인정책선호, 일반신뢰, 사적신뢰 등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을 밝히고 있는 기존연구 결과와 같다. 반면 정부신뢰에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동아시아 3국간에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 있다는 것도 밝혔다. 또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별로 특수한 경우에 따라 나타난다는 점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정부신뢰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 국가의 특성을 살펴보기보다는 대부분의 국가에 일반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를 하여온 기존 연구의 방향과 더불어 국가별 특성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정부신뢰, 정치참여, 정치효능감, 정책선호, 네트워크, 신뢰

* 차熙峯(제1저자):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Citize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of Korea, 1994),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부조직, 행정문화 및 사회자본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저서로는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2009), 「좋은 정부, 나쁜 정부」(2013),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임진왜란 이야기」(2014), 논문으로는 “정부신뢰의 요인: 정부정책인가? 정치태도인가?”(2013), “임진왜란 시 1, 2차 진주성전투의 국가 통합적 의미”(2013), “시민문화와 정부정책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2013) 등을 발표하였다. 주요경력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09)을 맡은 바 있다.

** 金東炫(교신저자): 영국 University of Glasgow에서 정치사상으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아시아·디아스포라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현대정치이론, 행정철학, 비판이론, 해석학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올바른 형태의 대화 또는 소통: 가다머의 대화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4), “가다머의 전통과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효의 유효성”(21세기정치학회보, 2013), “하버마스와 콜버그를 통해 본 유교문화의 효: 하나의 시론적 분석”(정치사상연구, 2012) 등이 있다. (dkim007@hanmail.net).

I. 서론

정부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집단적 목표를 위해 협조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시민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토론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신뢰는 참여 및 신뢰 등 한 사회의 시민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한 사회 내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토론과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정부신뢰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Almond와 Verba (1963)는 대인신뢰와 정부신뢰를 포함하는 사회 내 신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사회 내 전반적인 신뢰가 높을 때 민주주의체도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용이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왔고, 특히 미국(Brehm & Rahn, 1997; Newton & Norris, 2000), 캐나다(Newton & Norris, 2000), 유럽(Newton & Norris, 2000), 라틴아메리카(Booth & Richard, 1998)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한국사회의 신뢰만을 연구한 결과(박희봉 등, 2003; 이재혁, 2006)에서는 한국사회의 신뢰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고, 그나마 가족과 연고 집단에 신뢰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런 가운데 공적·제도적 신뢰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강한 자기표현 가치 추구를 향해 변화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였다(Inglehart, 1997). 이것은 이들 국가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비판적인 시민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신뢰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 또는 사람들 간의 수직적인 네트워크에서 출발된 신뢰관계를 보이는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서구이론가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 및 경제의 거시적 조건이 정부신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있는 실정이다(Ross & Escobar-Lemmon, 2010). 이러한 비판은 신뢰 또는 정부신뢰의 기원이 무엇이고, 각 국가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에 따라 정부신뢰의 변화 및 영향요인이 유사성을 지니기도 하는 동시에, 차이점도 발생한다. Rothstein과 Uslaner(2005)는 개신교 중심 사회는 신뢰의 수준이 높은 반면, 공산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은 신뢰의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Elazar(1972)는 미국 내에 있는 각 주들 역시 고유한 정치문화에 따라 정부신뢰 수준이 다르다고 하였다. Meer(2010: 519)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기관에 대해 신뢰를 보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다양한 측면을 보이는 복잡한 개념”(Christensen and Laegreid, 2005: 487)으로써 한 국가의 정치체제 및 시민의 정치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정치태도와 정부신뢰의 관계가 정치체제 내에서 시민과 제도 간의 상호관계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을 살펴보려 한다. 다양한 국가에서는 그 주민과 제도 간의 다양한 인과관계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간의 일반적인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연구해온 기존 연구에 국가 간의 공통점과 차별성에 주목한다. 즉 본 연구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 시민의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비교함으로써 정부신뢰 요인의 국가 간 공통점과 각국의 정치문화와 정치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개신교 및 개인주의 문화권에 있고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니고 있고, 동아시아 3국은 유교 및 집단주의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수행한 전통이 오래되지 않음에 따라 두 국가집단은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있어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연구되어 온 정치참여, 정책선호, 정치효능감, 네트워크, 신뢰, 개인의 경제·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6개국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치참여와 정부신뢰

정치참여와 정부신뢰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치참여가 높으면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기본으로 한다. Rothstein(2001)은 노동조합 및 정당에 가입하는 등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구성원 간의 신뢰와 정부신뢰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주장은 사회단체 참여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의 입장과 논리가 같다. 즉 Almond와 Verba(1963), Tocqueville(1988)과 Putnam(1993; 1995) 등 서구적 시민사회의 가치를 중시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치참여의 시민문화 및 가치가 신뢰, 협력, 상호작용 등의 사회자본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사회 내 개인 간의 상호관계에 따른 대인신뢰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기관에게까지 연장된다고 한다(Ross & Escobar-Lemmon, 2010).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으로 낮은 참여와 같은 정치문화에 의하여, 불신의 일반적인 지역 유산이 양산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단체생활이 높은 투표율, 공공이슈에 대한 인식 증가와 대의적 정부 신뢰 증가 등의 측면에 가시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Kaufman, 1999). Tocqueville(1988) 이래 미국의 전통적인 학계에서는 사회단체가 정치적 무관심 및 국가에 대한 수동적인 의존 등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반사적 역할을 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한다. 사회집단이 자발적 행위를 통해 지역사회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정부기관 또는 기업의 역할까지 담당 또는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Boix와 Posner(1998)는 사회자본이 결국 시민의 선거로 선출된 정책담당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성을 높은 수준에서 묻게 됨에 따라 전체 사회의 정치적 책임성을 증가시키고, 정부성과와 제도의 효과적인 작동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또한 Levi와 Stoker(2000)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소외감을 증폭시킴으로써 투표 및 선거운동에 대한 참여의욕을 꺾는다고 하였다. Easton(1975)과 Nye 등(1997) 역시 정부와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냉소주의가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고 논증하였다. Dalton(2004)은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정부활동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했다(Chanley et al., 2001). 사실상, 정부신뢰의 감소와 투표율의 감소가 미국(Hibbing & Theiss-Morse, 1995), 영국, 캐나다, 독일, 아이슬랜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Pharr & Putnam, 2000)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반면 Gamson(1968)은 정치활동과 정부신뢰 간의 다양한 관계를 이론화하여,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이 항상 정부기관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며, 정부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정치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때로는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지도 않고, 선거운동에 관여하지도 않으며, 정부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Rosenstone & Hanson, 1993). Levi와 Stoker(2000)는 특정한 환경에서 불만이 더 높은 수준의 참여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Deth(2000)는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고,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정부를 신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항의 및 폭력 시위와 같은 비전형적인 정치참여 성향을 보인다고도 하였다(Dalton, 2004; Inglehart, 1997; Muller, 1977; Ulbig, 2007). 이에 따라 Kasse(1999)는 한 국가의 정치기관이 공정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거나 정부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참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비전형적인 정치참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Levi와 Stoker(2000)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Deth(2000)는 참여율이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인지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Norris(1999)가 지적하듯이 시민사회의 활동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Kaase(1999)는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경우에 비합법적 형태의 정치참여가 일어나며, 정부신뢰가 강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치참여 자체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Levi와 Stoker(2000), Deth(2000)의 정치참여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가 부정적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신뢰나 제도에 대한

확신이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경험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정치제도에의 경험으로부터 온다는 주장이다. 정부제도 혹은 국가권력이 정직하게 기능하지 않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수찬(2002)의 한국의 사례연구에서 정치참여가 높은 사람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지적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행정문화가 민주적 시민문화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2. 정책선호와 정부신뢰

Uslaner(2001)는 정부신뢰가 정부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느낌, 그리고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Gershtenson 등(2006)은 미국에서 정책선호와 정부선호가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밝혔다. Hetherington(2005)은 대중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책과 신뢰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역설했다. Miller와 Borrelli(1991)는 한 사람이 특정한 정책이슈에 대해 선호하면 할수록 그 정책을 제시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수의 이론가들은 정부신뢰가 정부지도자, 여당, 현 정부에서 제안된 공공정책 등의 지지와 관련된 특정한 정권의 지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Citrin, 1974; Citrin & Green, 1986; Hetherington, 1998). 특정한 정권의 지지는 특정한 정권의 성과에 대한 일반시민의 긍정적인 태도가 확장된 것이기 때문이다(Easton, 1975; Muller, 1977; Craig, 1980). 정부신뢰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대한 단기적 효과를 보여주는 전략적 기능과, 정치인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itrin, 1974; Keele, 2005; Miller & Borelli, 1991; Uslaner, 2002). 특히 민주주의가 덜 발전된 국가에서는 고객주의 및 정실주의의 채널을 통해 정권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 개인은 그 정권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정권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낸 사람들은 그 정권을 신뢰하는 성향이 있다.

Chanley 등(2000)과 Hetherington(1998)은 정부신뢰가 정책선호, 현직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한 평가와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시민들이 개인적 가치 및 선호와 일치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신뢰할 것임은 당연하다(Hibbing & Theiss-Morse, 2001). Gershtenson 등(2006)은 특정한 정책 이슈 및 그 이슈에 대한 정치인의 태도에 관해서는 미국 대중에게 제공된 정보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책선호와 신뢰 간의 지속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Hetherington(2005)은 정부신뢰가 특정한 개인이 관여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Miller와 Borrelli(1991)은 정책 이슈에 대해 선호가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정부가 신뢰를 높이고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시민들이 받아들일만한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ibbing과 Theiss-Morse(2001)는 현직 대통령 및 의원에 대한 지지와 정부신뢰 간에 강한 연계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Citrin과 Green(1986)은 정부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즉 특정한 정치인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Campbell, et. al., 1960; Hetherington, 1998). Gershtenson 등(2006)은 정당에 가입하고 참여한 사람들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당 선호는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hristensen & Laegreid, 2005). Rothstein(2001) 역시 노동조합 및 정당 가입자들이 서로 간에 보다 신뢰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최근 선거에서 이긴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 지지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들에 대해 자긍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Anderson & Tverdova, 2001). 더욱이 승리한 정당에 투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와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Norris, 1999). 즉, 사람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을 지지할 경우 그 정치인이 이끄는 정부에 대해 보다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Citrin 1974; Citrin and Green 1986; Hetherington, 1998; Hetherington & Rudolph, 2008).

반면, 정당선호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확증하기 어렵다는 연구도 있다. Alford(2001)가 논박하듯이, 미국 공화당원들은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일 때 평소보다 정부에 대해 신뢰를 보내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정책선호와 관련이 있는 정부신뢰가 정부정책, 정부 리더십, 정당 등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과 태도와의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신뢰와 정책선호 간의 관계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결과는 정부신뢰와 시민의 태도 간의 이해의 폭을 깊게 해줄 수 있다.

3. 정치 효능감과 정부신뢰

정부신뢰는 포괄적인 정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신뢰는 사람들이 정치기관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시민의 요구와 관련된 정부성공의 평가를 반영한다는(Ross & Escobar-Lemmon, 2010) 것이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나타난 객관적인 결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나타난 정부정책의 결과 및 개인적 경험(Hardin 1993)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 제도론자들의 입장에서의

정부신뢰는 그 국가사회의 총체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학자들(Chanley, et. al., 2000; Citrin & Green, 1986; Hetherington, 1998; Keele, 2007)은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성과에 대해 시민들이 만족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시민들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에 따라 정책성과에 대해 만족하게 될 때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Christensen과 Laegreid(2005)는 정부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은 시민들이 정부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Mishler와 Ross(2001)는 공산주의를 겪은 국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부신뢰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Shyu(2008)는 대만을 대상으로 정부성과가 제도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ibbing과 Theiss-Morse(1995)는 정치시스템과 특정한 기관에 대한 시민의 인식 모두가 정책결과에 의해 형성되고, 이 정책결과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책담당자에 대한 이미지와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하였다.

결국, 정부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과 경험에 달려있다(Hetherington, 1998; Nye, et. al., 1997; Schoon, et. al., 2011). Chanley 등(2000)과 Keele(2007)은 신뢰의 역동성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etherington(1998)은 시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정부신뢰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특정한 정치인, 정당, 정책에 대해 선호할 때 정부성과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Citrin, 1974; Citrin and Green, 1986; Easton, 1975; Hetherington, 1998; Gershtenson, et. al., 2006).

다수의 이론가들은 정치 효능감이 정치적 특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Almond & Verba 1963; Campbell, et. al., 1954). 정치 효능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내부 정치 효능감과 정부신뢰, 그리고 효능감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Abramson, 1983; Brehm & Rahn, 1997; Easton, 1965; Hetherington, 1998; Inglehart, 1997). 이와 같은 이론의 공통적인 관점에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높은 수준의 내부 정치 효능감이 정부신뢰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Miller와 Listhaug(1990)는 정부신뢰와 외부 정치 효능감을 시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정부 결과를 양산하기 위한 정부체제의 대응이라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정부신뢰에 대한 정부의 대응 효과를 다룬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Citrin & Green, 1986; Hetherington, 1998). 사람들은 정부의 대응에 따라 정부를 신뢰하고, 개인적인 취향을 기준으로 다양한 이유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를 인식한다.

한편, 다수의 연구자들은 높은 수준의 내부 정치적 효능감이 항상 정부신뢰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Norris(1999)는 '비판적인 시민(critical citizen)'이라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개인적인 정치태도의 다양한 정치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구세대는 정부활동 및 정치과정에 참여할수록 정부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Meer, 2010; Ullbig, 2008), 신세대를 다수 포함하는 비판적인 시민들은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Hooghe, 2011) 정치참여 수준이 높고 정치체제를 이해하더라도 다양한 양태의 정부신뢰를 보인다고 한다.

일반인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정부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며(Easton, 1975), 이러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정치체제에 대한 일련의 태도와 관련된다. Gamson(1968)은 내부 정치적 효능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의 조합이 급진적인 정치행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높은 내부 정치적 효능감과 낮은 정부신뢰와 결합될 수도 있고, 다른 상황에서 낮은 내부 정치적 효능감과 높은 정부신뢰가 결합될 수도 있다. Paige(1971)는 높은 내부 정치적 효능감과 낮은 정부신뢰가 결합된 상황에서는 법을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로 시민들이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는 경향이 높고, 낮은 내부 정치적 효능감과 높은 정부신뢰가 결합된 상황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정치참여를 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한다.

4. 네트워크와 정부신뢰

Almond와 Verba(1963)가 지적했듯이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정치적 사고, 사회적 신뢰, 정치참여, 그리고 경쟁력 있는 시민사회활동 등을 보다 활발하게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에의 참여가 협동의 능력 뿐 아니라 집단적 행위를 위한 공유된 책임감을 터득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단체참여는 집단행동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을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민주주의 건설에 참여를 하도록 지휘하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Krishna, 2001). Axerlord(1984) 역시 개인의 각종 자발적 사회단체 참여 및 모임으로 인해 상호 호혜주의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Stolle(1998)도 미국, 독일, 스웨덴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자발적 조직에 오래 소속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의 신뢰가 커진다고 하였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참여가 정부신뢰를 위시하여 정부 대응성, 정치적 효능성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Rosenstone & Hansen 1993)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특정한 행위를 함께 함으로써 신뢰가 증진된다고 한다(Putnam, 2000; Warren, 1999).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다양한 연구(Brehm & Rahn, 1997; Knack & Keefer, 1997)에서 자발적 조직의 구성원들이 보다 신뢰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Delhey와 Newton(2003)은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신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상호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보다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협력을 위한

미래 반복된 상호관계를 예상함으로써 신뢰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동유럽과 중유럽의 공산주의체제에서 특별히 중요하다(Offe 1999). 이들 국가에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은 부족한 자원과 서비스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중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Delhey & Newton, 2003). 그러나 Uslander(2002)는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적 연결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양산할 것이라는 가정은 증거도 약하며, 이론적인 토대도 약하다고 반박한다.

한편, 일련의 학자들은(Paxton, 2002; Uslander, 2002; Delhey & Newton, 2005; Hooghe, 2003) 단체참여와 정부신뢰 간의 분명한 이론적, 실증적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체의 유형과 성격을 불문하고 단체참여가 높다고 해서 정부신뢰가 증가된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민단체가 정부신뢰를 포함한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신뢰가 민주정부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단체의 성격에 따라 어떤 단체참여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체참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구 사회자본이론가들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수평적, 민주적, 개방적 단체참여가 정부신뢰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각종 단체의 구성원의 특징과 운영방식이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구 사회와 같은 사적신뢰와 정부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도 재론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수직적 네트워크로 조직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성원의 증가로 보다 개방되고, 사회 내 사회단체의 수가 증가한다면 수직적 네트워크가 수평적 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직적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얼마간의 공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신뢰가 어떤 단체에 의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의 성격을 보다 세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5.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많은 연구자들은 정부신뢰를 사회신뢰의 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정부신뢰와 대인신뢰, 사회신뢰 모두가 서로 긍정적인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대인신뢰와 사회신뢰의 연장선에서 정치인과 관료의 책임성이 증진되어 정부신뢰로 증진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적 수준에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간의 긍정적 관계를 밝힌 다수의 경험적인 연구결과가 있다(Inglehart, 1997; Rothstein, 1998; Newton & Norris, 2000; Paxton, 2002; Meer, 2003; Delhey & Newton, 2005).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간 인과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화이론과 제도이론의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문화이론은 모든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사회·정치적 문화로부터 다른 사람을 신뢰할 것인지를 학습 받는다고 가정하며(Mishler & Rose, 2001: 34), 이러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로 연장된다고 한다(Almond & Verba, 1963; Inglehart, 1997; Putnam, 1993). 이런 측면에서 Almond와 Verba(1963)는 정치참여를 포함한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는 사회신뢰와 시민문화, 정부신뢰를 증진한다고 주장했다. Putnam(1993, 1995)은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공식·비공식 기관도 신뢰함으로써 정부기관이 보다 잘 작동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Fukuyama(1995)는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교류에 의해 축적된 신뢰가 국가에 따라서 수준 및 특성의 차이는 있지만 공식기관의 신뢰로까지 확장 된다고 주장했다. Brehm과 Rahn(1997)은 정부신뢰와 사회신뢰 간에 약하기는 하지만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밝혔다. 또한 활동적인 자발적 사회단체 및 사회 네트워크를 포함한 사회신뢰의 감소는 서구 사회에서 정부 및 정치지도자의 신뢰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Putnam, 2002; Dalton, 2004; Newton & Zmerli, 2011)

제도이론은 사회신뢰가 정부성과 및 민주체제의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크게 유래되었다고 가정한다(Hetherington, 1998; Mishler & Rose, 2001: 35). 제도이론가들은 사람들이 현행 정치기관을 신뢰하게 되면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한다(Levi, 1996). 정부기관은 민주정부, 강한 경제, 보다 협력적 사회를 증진하기 때문에 사회신뢰를 양산할 것이다(Fukuyama, 1995; Levi, 1996). 사람들은 정부기관이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Brehm and Rahn 1997; Levi 1996; Offe 1999),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며(Levi & Stoker, 2000), 안정적인며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기(Huntington, 1968) 때문에 서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

Montero 등(1997)은 스페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사 연구에서 대인신뢰와 전통적, 비전통적 정치참여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Newton, 1999: 184). Dekker와 Uslaner(2001)도 서유럽에서 사회적 신뢰와 전통적, 시위적 정치행태 간에는 약하지만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Levi(1996)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적 신뢰 사이에는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는 Inglehart(1997)의 주장과 같이 신뢰와 같은 개인 및 사회적 가치가 경제성장이나 안정된 민주정부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바람직한 특성과 공유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신뢰가 인간관계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켜 결국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뢰 및 참여의 확산은 정치인 및 관료엘리트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결국 정부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가 크지 않거나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다수

있다(Wright, 1976; Craig, 1993: 27; Kaase, 1999; Newton, 1999; Newton and Norris, 2000; Uslaner, 2000; Newton & Zmerli, 2011). Kaase(1999)는 9개 유럽 국가에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가 긍정적이지만 미미하였다고 하였다. Norris(1999)도 17개 선진국에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가 매우 낮게 나왔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Orrin, 1997, 85), 러시아(Gibson, 2001, 64), 그리고 공산주의를 경험한 국가(Mishler and Rose, 2001)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

Newton(1999)은 사회신뢰는 개인적 영역이며, 정부신뢰는 공적·정치적 영역이라고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간의 차이를 설명했다. Uslaner(2002)는 정부신뢰는 전략적인 신뢰이며, 사회신뢰는 사회의 기초를 구성하는 도덕적인 신뢰라고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부신뢰는 “깊이 있게 고착화된 가치보다는 일상적인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지와 관련”(Uslaner, 2002: 151)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정부기관의 단기적인 성과의 부침에 따라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의해 단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부신뢰가 사회신뢰를 양산할 수 없고,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각각의 기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회신뢰가 전혀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한 신뢰로 정의되면서 사적신뢰(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과 같이 일정한 개인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 대한 신뢰)와 구분된다. 사회신뢰는 민주적 가치 및 사회정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사회의 도덕적 기초와 장기적 이익을 가져오는 반면, 사적신뢰는 사회의 일부 구성원 또는 작은 집단의 전략적이며 단기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뢰를 포함한 사회자본 연구가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연구의 대상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인신뢰와 정부신뢰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같이 대인신뢰 및 정부신뢰를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모두 개념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적신뢰를 중시하는 문화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동일하게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친한 사람에 대한 사적신뢰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뢰는 결국 친한 사람에 대한 사적신뢰를 바탕으로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발전하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는 공적영역에 대한 평가도 사적영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인신뢰를 친한 사람에 대한 사적신뢰와 일반인에 대한 신뢰를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6. 개인적 배경과 정부신뢰

본인의 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본인의 입장과 태도가 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에 개인적인 특성 또는 개인이 소속해 있는 집단의 특성이 정부제도 등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신뢰는 개인적인 수준으로 형성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활발한 인간관계로부터 발전된 공동체 단위로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세대, 계층, 지역,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정부에 대한 신뢰로 실체를 나타낼 수도 있다.

Newton(199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신뢰는 사회적 귀속감 및 이념적 충성도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개인적 연출 및 유사성에 의해 강화되고(Bianco, 1994), 이차적으로 정부에 대한 정보와 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가 세대, 사회계층, 정치적 차이에 기초한 다양한 갈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연구자들(Abramson, 1983; Christensen & Laegreid, 2005; Hetherington, 1998)이 연령, 교육, 소득, 성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를 정부신뢰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및 소득, 사회적 계층 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다수 계층을 이루는 사람들의 정부신뢰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득, 교육, 계층,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은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대한 만족 및 신뢰 수준이 높을 것이다(Newton, 1999). 반면, 경제·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거주 및 이웃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정부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기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jornskov, 2006; Glaeser, et. al., 2000). Putnam(2000) 역시 젊은 미국인들이 나이든 사람들보다 정부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gger 등(1961)은 나이든 사람들이 정치 권위에 대해 신뢰가 낮다고 하였다. Tan과 Tambyah(2001)는 스웨덴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연령층은 45세에서 54세까지이며, 독일에서는 젊은 층과 55세에서 65세까지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신뢰가 높다고 하였다.

Inglehart(1997)와 Putnam(2000)은 정부신뢰가 유소년기에 학습되어 세대를 거쳐 전달된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부기관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Meer, 2010), 정부신뢰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인식되어 있다(Agger, et. al., 1961; Dalton, 2004). Stolle(1998)는 스웨덴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신뢰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Hibbing & Theiss-Morse, 1995; Johnson, 2005)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오히려 비판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그 결점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신뢰에 부정적이다(Hibbing & Theiss-Morse, 1995; Gershtenson, et. al., 2006). 중국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은 시민들이 중앙정부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Li, 2004).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Citrin, 1974; Mishler & Rose, 2001; Newton & Norris, 2000)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Mishler와 Rose(2001)는 정부신뢰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연령, 교육, 소득, 성 등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Shi(2001)는 중국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부신뢰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교육수준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예외도 있다. Li(2004)는 중국에서 소득 수준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사람들이 정부신뢰에 부정적이며, 농부들의 수입이 평균 수준이 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고 하였다. Mishler와 Rose(2001)는 무직자 및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부신뢰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정부신뢰는 성차에 따라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자들(Christensen & Laegreid, 2005; Glaeser, et. al, 2000)이 남성보다 여성이 정부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Fuse와 Hanada(2009)는 진보적 여성들이 정부에 대해 불신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7. 이론적 논의의 요약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요약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연구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를 요인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요약

정부신뢰 영향 요인	긍정적 관계를 주장하는 연구	부정적 관계 또는 관계없음을 주장하는 연구
정치참여	Almond & Verba(1963), Boix & Posner(1998), Easton(1975), Escobar-Lemmon(2010), Hibbing & Theiss-Morse(1995), Kaufman (1999), Levi & Stoker(2000), Nye, et. al.(1997), Pharr & Putnam (2000), Putnam (1993; 1995), Ross & Rothstein(2001), Tocqueville(1988)	Dalton(2004), Deth(2000), Gamson(1968), Inglehart(1997), Kasse(1999), Levi & Stoker (2000), Muller(1977), Norris (1999), Ulbig(2007)
정책선호	Chanley, et. al.(2000), Citrin(1974), Citrin & Green(1986), Gershtenson, et. al.,(2006), Hetherington(1998), Hetherington & Rudolph(2008), Hibbing & Theiss-Morse(2001), Miller & Borrelli(1991), Norris(1999), Uslander(2001)	Alford(2001)
외부정치 효능감	Citrin & Green(1986), Hetherington (1998), Miller & Listhaug(1990)	

정부신뢰 영향 요인	긍정적 관계를 주장하는 연구	부정적 관계 또는 관계없음을 주장하는 연구
내부정치 효능감	Meer(2010), Ullbig(2008)	Hooghe(2011), Norris(1999)
네트워크	Delhey & Newton(2003), Offe(1999)	Hooghe(2003), Paxton(2002), Uslander, 2002
사회신뢰	Almond & Verba(1963), Brehm & Rahn(1997), Dalton(2004), Delhey & Newton(2005), Fukuyama(1995), Inglehart(1997), Levi(1996), Meer(2003), Newton & Norris(2000), Newton & Zmerli(2011), Paxton, 2002, Putnam (1993), Rothstein(1998)	Craig(1993), Gibson(2001), Kaase(1999), Mishler & Rose (2001), Newton(1999), Newton & Norris(2000), Newton & Zmerli(2011), Norris(1999), Orren(1997), Uslander(2002), Wright(1976)
높은 연령	Bjornskov(2006), Glaeser, et. al.(2000), Putnam(2000)	Agger, et. al.(1961)
높은 교육수준	Agger, et. al.(1961), Dalton(2004), Stolle(1998)	Gershtenson, et. al.(2006), Hibbing & Theiss-Morse(1995), Johnson(2005), Li(2004)
여성	Christensen & Laegreid(2005), Glaeser, et. al.(2000)	Fuse & Hanada(2009)

Ⅲ. 스칸디나비아 3국과 동아시아 3국의 정치체제와 문화의 차이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로 알려지고 있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은 정치체도와 문화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국은 인종, 언어, 종교 등의 측면에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동질적이며, 활동적인 시민사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를 갈등이 아닌 협상에 의해 해결하는 전통을 보유한 국가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Torpe & Lolle, 2009). 정치적으로 핀란드는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수장을 맡고 있는 반면, 덴마크와 스웨덴은 입헌군주제 하에서 수상이 국가수장을 맡고 있다.

<표 2> 6개국의 일반적 특징

국가	국가수장	의회	정당	인종	종교	1인당 GDP(연도)
덴마크	입헌군주제, 정당대표에 의해 선출된 수상	단원제	다당제	89.6% 덴마크인	개신교 (덴마크교회)	\$37,151 (2011)
핀란드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단원제	다당제	90% 핀란드인	개신교 (핀란드 루터복음회)	\$49,349 (2011)
스웨덴	입헌군주제, 의회에서 선출된 수상	단원제	다당제	80% 스웨덴인	개신교 (스웨덴 루터회)	\$56,956 (2011)
중국	공산주의 체제에서 선출된 국가주석	공산당 전당대회	일당제	91.5% 한족	유교 (불교, 도교, 중국 전통교 혼합)	\$5,450 (2011)

국가	국가수장	의회	정당	인종	종교	1인당 GDP(연도)
일본	입헌군주제, 의회에서 선출된 수상	양원제	다당제	98.5% 일본인	유교 (불교, 일본 신도)	\$46,895 (2012)
한국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단원제	양당제	99% 한국인	불교, 개신교, 가톨릭, 유교	\$23,020 (2012)

이에 반해,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의 정치적·문화적 배경은 스칸디나비아 3국과 매우 거리가 멀다. 동아시아 3국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스칸디나비아 3국과 다른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의회 및 정당체제는 서구 민주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같은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중국은 정치체제에 있어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한국 및 일본과 다르다. 더욱이 동아시아 3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상황, 종교 등은 서로 다양하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정치문화 측면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별 문화를 지역으로 구분한 GLOBE(the Glob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Behavior Effectiveness Research)에 따르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국가 권역으로 분류된다(House et al., 2004). 여기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역사, 문화, 종교, 언어 등에 있어서 공통점을 지녔으며 복지국가를 실현한 5개의 북유럽 국가를 말한다(Gupta and Hanges, 2004). 반면, 중국, 일본, 한국 등은 아시아의 유교국가로 분류되며, 아시아 유교국가 권역의 특징은 근면, 자기희생, 절제된 겸양 등을 교육원칙으로 하는 가족과 같은 수직적 제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분류된다(Gupta and Hanges, 2004). 따라서 스칸디나비아 국가 권역과 아시아 유교 권역은 매우 다른 문화권역으로 대비된다.

또한 세계 주요국가의 문화를 상급자와 하급자의 권력의 차이 측면(권력 거리)과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한 Hofstede(2001: 9)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 3국과 동아시아 3국의 문화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 3국은 모두 상사와 하급자 간의 권력 거리가 짧고 개인주의 문화를 보유한 국가이며, 동아시아 3국은 모두 상사와 하급자 간의 권력 거리가 길고 집단주의 문화를 보유한 국가로 분류된다.

〈표 3〉 권력 거리와 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 거리	
		짧은 권력 거리	긴 권력 거리
집단-개인주의	집단주의		중국, 일본, 한국
	개인주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참고 : Hofstede(1991: 54), Hofstede(2001: 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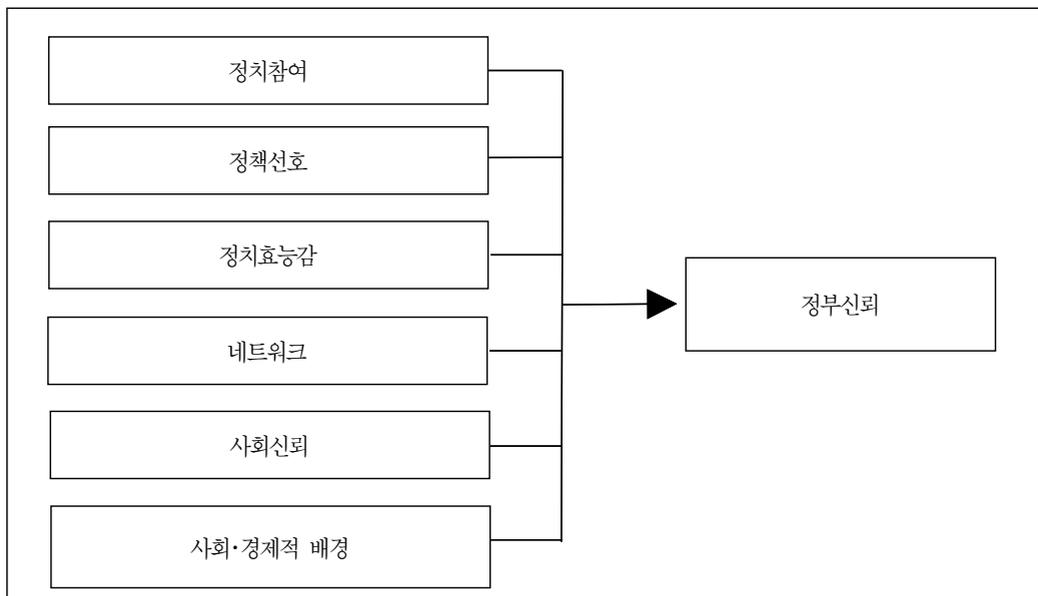
Pye(1999) 역시 아시아 국가의 문화를 집단주의와 유교주의로 규정하면서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서구 문화와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Yamagishi 등(1998)은 한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주의 사회는 신뢰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Wong 등(2011)은 권위적인 정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정부신뢰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도 한다.

IV. 분석틀

1. 연구모형

이상의 이론적 논의는 정부신뢰가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개인의 정치적 태도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기초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신뢰, 단체참여, 정치참여 및 각종 논의의 개방, 거주지역의 특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본적 연구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기본적 연구과제는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러한 관계 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 주민들의 정치참여, 정책선호, 정치효능감, 네트워크, 사회신뢰,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의회, 정당, 법원, 정부공직자, 경찰, 군대 등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6개국의 정부신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고,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동아시아 3개국의 정부신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며, 6개국의 정부신뢰에 특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2.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1999에서 2001년까지 EPCReN Survey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3개국 및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의 스칸디나비아 3개국에서 수집한 것이다. 이 조사는 각 국가에서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각국에서의 조사팀은 영어로 된 공통의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6개국의 언어로 해석하여 표본 추출될 시민에게 응답을 받았다.

3. 측정 및 변수

정부신뢰 측정 및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신뢰를 종속변수로 하고, 정치참여, 정책선호, 정치효능감, 네트워크, 사회신뢰, 사회·경제적 배경 등은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를 제외한 변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변수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정부신뢰

정부신뢰는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로 정의하였으며, 일반시민이 의회, 정당, 법원, 정부공직자, 경찰, 군대 등 6가지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인식을 측정하였다. 6가지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의 요인분석 결과 각각 0.783, 0.701, 0.776, 0.811, 0.732, 0.674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다.

정치참여

본 연구에서의 정치참여는 투표와 정치인접촉이 두 가지 하위변수로 이루어졌다. 투표는 투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시민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정치인접촉은 정부공직자, 의원, 정당 등 3가지 기관에 대한 접촉을 측정하였다. 정치인접촉의 요인분석 결과 각각 0.723, 0.935, 0.776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정책선호

본 연구에서 정책선호는 정당정책선호와 정치인정책선호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정당정책선호는 정당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정치인정책선호는 정치인의 정책 아이디어, 도덕성, 리더십,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 등을 측정하였다. 정치인정책선호의 요인분석 결과 각각 0.558, 0.745, 0.693, 0.643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은 내부정치효능감과 외부정치효능감으로 구성되었다. 내부정치효능감은 일반시민의 정치에 대한 이해 및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신념(Campbell, et. al., 1954; Niemi, et. al., 1991)으로 정의하였다. 내부정치효능감은 정부에 대한 영향력과 정부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두 요인 모두 0.837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외부정치효능감은 시민의 요구에 따른 정부기관의 대응성에 대한 신념(Balch 1974; Campbell, et. al., 1954; Coleman and Davis 1976; Converse 1972; Niemi, et. al., 1991)으로 정의하였고, 정당정책 간의 차이, 공직자의 시민에 대한 관심, 정치인의 시민에 대한 관심 등을 측정하였다. 외부정치효능감의 요인분석 결과 각각 0.653, 0.793, 0.697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응답자가 보유한 개인 및 단체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네트워크는 응답자가 속한 직장, 자발적 시민단체, 개인적 네트워크, 언론 접촉 등 4가지 네트워크를 측정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0.721, 0.781, 0.682, 0.663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사회신뢰

본 연구에서 대인신뢰는 일반신뢰와 사적신뢰로 구분하였다. 일반신뢰는 개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뢰로 정의하였고, 일반인, 낯선 사람, 외국인 등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다. 3개의 측정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0.597, 0.883, 0.872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사적신뢰는 개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사람에 대한 신뢰로 정의하였다. 친구, 친척, 직장동료,

동창, 직장상사 등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다. 5개의 측정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0.658, 0.731, 0.825, 0.703, 0.696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사회·경제적 배경

본 연구에서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성, 연령, 교육 수준, 가족 소득, 사회계층, 결혼 여부, 종교 등이며, 이들은 응답자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 및 하위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설문항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측정변수 및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정부신뢰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의회, 정당, 사법부, 공무원, 경찰, 군대
정치참여	투표	투표 결과의 영향	투표 결과의 사회 영향 정도
	정치인접촉	정치인 접촉의 영향	공무원, 의회, 정당 접촉 결과의 사회 영향 정도
정책선호	정당정책	정당정책 선호도	정당정책 선호도
	정치인정책	정치인정책 선호도	정치인의 정책 아이디어, 도덕성, 리더십,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도
정치효능감	내부 효능감	정부에 대한 영향력	정부에 대한 영향력, 정부에 대한 이해도
	외부 효능감	정부 정책결과 만족도	정당 간의 정책 차이, 관료의 시민에 대한 관심, 정치인의 시민에 대한 관심
네트워크		개인 및 단체 네트워크	자발적 시민단체 참여, 개인적 네트워크, 언론 접촉
대인신뢰	사적신뢰	인간관계를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된 사람 신뢰	친구, 친척, 직장동료, 동창, 직장상사
	일반신뢰	개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 신뢰	일반인, 낯선 사람, 외국인
사회·경제적 배경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성, 연령, 교육, 가족 소득, 사회 계층, 학력, 결혼상태, 종교유무

V. 분석 및 논의

<표 5>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의 정부신뢰와 일반신뢰, 사적신뢰를 비교한 결과이다. 정부신뢰에 있어서는 중국의 정부신뢰 평균값(3.11)이 유난히 높게 나타났고, 스칸디나비아 3국의 정부신뢰가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의 정부신뢰보다 높았다. 일반신뢰에 있어서는 스칸디나비아 3국이 동아시아 3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적신뢰에 있어서는 중국의 사적신뢰 평균값(2.97)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의 사적신뢰가 스칸디나비아 3국의 사적신뢰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중국인의 정부신뢰와 사적신뢰가 특별히 높은 편이고, 일반신뢰는 한국과 일본과 같이 낮은 편이다. 또한 중국의 정부신뢰와 사적신뢰를 제외하고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정부신뢰, 일반신뢰, 사적신뢰의 수준이 동아시아 3국의 신뢰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 국가별 정부신뢰 및 신뢰 비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중국	일본	한국
정부신뢰 (표준편차)	2.58 (.50)	2.45 (.49)	2.51 (.51)	3.11 (.52)	2.01 (.56)	2.43 (.54)
통계값	F=647.066, p=.000					
일반신뢰 (표준편차)	2.27 (.56)	2.23 (.60)	2.27 (.60)	2.10 (.56)	1.80 (.59)	1.90 (.59)
통계값	F=122.023, p=.000					
사적신뢰 (표준편차)	2.70 (.49)	2.79 (.47)	2.74 (.54)	2.97 (.37)	2.53 (.50)	2.65 (.51)
통계값	F=82.396, p=.000					

〈표 6〉은 6개국 일반시민의 정치태도 및 정부인식,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정치태도 변수는 투표, 정치인접촉, 정당정책선호, 정치인 정책선호 등 4개, 정부인식은 외부정치효능감과 내부정치효능감의 2개,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일반신뢰, 사적신뢰 등 3개 변수이다. 개인의 경제·사회적 배경은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독립변수 집단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설명력(R²) 비교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정치태도를 독립변수로 한 〈모델 1〉의 설명력(R²)은 0.057이고, 〈모델 1〉에 정부인식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델 2〉의 설명력(R²)은 0.151이며, 〈모델 2〉에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델 3〉의 설명력(R²)은 0.236이고, 〈모델 3〉에 개인의 경제·사회적 변수를 추가한 〈모델 4〉의 설명력(R²)은 0.261이며, 〈모델 4〉에 국가를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델 5〉의 설명력(R²)은 0.460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신뢰에 대해 정치태도는 5.7%의 모델설명력을 나타냈고, 정부인식은 9.4%의 모델설명력을 추가시키고, 사회자본은 8.5%의 모델설명력을 추가시키며, 개인의 경제·사회적 배경은 2.5%의 모델설명력을 추가시키고, 국가변수는 19.9%의 모델설명력을 추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독립변수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가별 특징이 정부신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6개국 정부신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표준화 회귀계수(표준오차)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투표	-.008 (.011)	-.019 (.011)	-.066*** (.011)	-.055*** (.013)	.066*** (.013)
정치인접촉	.084*** (.017)	.056*** (.016)	.000 (.020)	-.012 (.020)	.005 (.018)
정당정책선호	.178*** (.008)	.127*** (.008)	.113*** (.008)	.112*** (.009)	.120*** (.008)
정치인정책선호	.079*** (.014)	.095*** (.014)	.097*** (.014)	.089*** (.015)	.047*** (.013)
외부정치효능감		.343*** (.013)	.315*** (.014)	.314*** (.014)	.202*** (.013)
내부정치효능감		-.067*** (.011)	-.083*** (.011)	-.072*** (.012)	-.019 (.010)
네트워크			.056*** (.018)	.068*** (.018)	.031* (.016)
일반신뢰			.119*** (.014)	.124*** (.015)	.084*** (.013)
사적신뢰			.205*** (.017)	.191*** (.017)	.110*** (.015)
성				.001 (.015)	.023* (.013)
연령				-.036** (.008)	-.019 (.007)
교육수준				-.154*** (.007)	-.037** (.006)
사회계층				.111*** (.005)	.045** (.004)
소득				-.032* (.010)	.019 (.009)
결혼여부				.009 (.016)	-.022* (.015)
종교				-.024 (.018)	.056*** (.018)
덴마크					-.010 (.015)
스웨덴					.001 (.025)
중국					.410*** (.031)
일본					-.148*** (.029)
한국					-.212*** (.027)
R2	.057	.151	.236	.261	.460
F	101.322***	194.686***	182.345***	110.529***	202.322***

***p < .0001, **p < .01, *p < .05)

〈표 7〉는 국가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6개국을 각각 분리하여 정치태도, 정부인식, 사회자본, 개인의 경제·사회적 배경 등의 독립변수가 정부신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덴마크에서는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 설명력이 27%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투표, 정당정책선호, 정치인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일반신뢰, 사적신뢰, 성, 연령 등 8개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 결과로 덴마크 일반시민은 투표결과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정당을 선호할수록, 정치인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외부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사적신뢰가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표 7〉 국가별 정부신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표준화 회귀계수(표준오차)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중국	일본	한국
투표	.062* (.107)	.044 (.026)	.086* (.060)	.024 (.025)	.157*** (.031)	.052 (.038)
정치인접촉	-.030 (.036)	-.015 (.032)	-.090 (.055)	.020 (.045)	.094* (.043)	.079 (.095)
정당정책선호	.071* (.019)	.086** (.013)	.100* (.025)	.228*** (.020)	.108** (.022)	.109* (.025)
정치인정책선호	.056* (.030)	.077** (.023)	-.031 (.040)	.150*** (.037)	.067 (.030)	.063 (.045)
외부정치효능감	.351*** (.030)	.305*** (.023)	.228*** (.040)	.079* (.032)	.172*** (.033)	.204*** (.041)
내부정치효능감	.025 (.025)	.026 (.018)	-.011 (.029)	-.050 (.026)	-.097* (.030)	-.057 (.032)
네트워크	.020 (.033)	-.005 (.030)	.124* (.048)	.016 (.044)	.090* (.042)	.010 (.078)
일반신뢰	.075* (.029)	.070* (.022)	.126** (.037)	.129*** (.031)	.101* (.038)	.032 (.042)
사적신뢰	.108*** (.032)	.132*** (.027)	.168*** (.039)	.161*** (.048)	.093* (.045)	.174*** (.047)
성	.118*** (.027)	.046 (.022)	.028 (.040)	-.071* (.033)	.098** (.040)	-.016 (.050)
연령	-.070* (.013)	-.032 (.011)	-.097* (.020)	.021 (.022)	.118** (.019)	-.025 (.035)
교육수준	.043 (.014)	-.051 (.009)	.034 (.018)	-.114** (.016)	-.066 (.021)	-.113* (.025)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중국	일본	한국
사회계층	.054 (.011)	.048* (.007)	-.052** (.016)	.064 (.010)	.075 (.014)	.007 (.019)
소득	-.038 (.020)	.014 (.013)	.228*** (.027)	.054 (.026)	-.036 (.024)	.023 (.045)
결혼여부	.024 (.029)	-.064** (.023)	-.037 (.043)	-.002 (.048)	-.015 (.043)	-.052 (.058)
종교	.027 (.051)	.120*** (.033)	.077 (.046)	-.002 (.050)	.006 (.045)	.024 (.046)
R2	.270	.227	.264	.219	.223	.117
F	23.783***	26.479***	116.367***	14.037***	12.677***	4.071***

***p < .0001, **p < .01, *p < .05)

핀란드에서는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 설명력이 22.7%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정당정책선호, 정치인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일반신뢰, 사적신뢰, 사회계층, 결혼상태, 종교 등 8개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 결과로 핀란드 일반시민은 정당정책을 선호할수록, 정치인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외부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사적신뢰가 높을수록,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 설명력이 26.4%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투표, 정당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네트워크, 일반신뢰, 사적신뢰, 연령, 사회계층, 가족 소득 등 9개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 결과로 스웨덴 일반시민은 투표결과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정당정책을 선호할수록, 외부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인 및 단체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사적신뢰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가족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동아시아 3국은 스칸디나비아 3국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 설명력이 21.9%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정당정책선호, 정치인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일반신뢰, 사적신뢰, 성, 교육수준 등 7개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 결과로 중국의 일반시민은 정당정책을 선호할수록, 정치인의 정책을 선호할수록, 외부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사적신뢰가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 설명력이 22.3%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투표, 정치인접촉, 정당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내부정치효능감, 네트워크, 일반신뢰, 사적신뢰, 성, 연령 등 10개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 결과로 일본 일반시민은 투표결과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정치인 접촉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정당정책을 선호할수록, 외부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내부정치효능감이 낮을수록, 개인 및 단체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사적신뢰가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 설명력이 11.7%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정당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사적신뢰, 교육수준 등 4개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 결과로 한국 일반시민은 정당정책을 선호할수록, 외부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사적신뢰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상의 통계분석 결과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국가별로 공통점도 있고, 상이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개국 모두 정당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사적신뢰 등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을 제외한 5개국에서 일반신뢰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핀란드,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3개국에서 투표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웨덴과 한국, 일본을 제외한 3개국에서 정치인정책선호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본에서는 정치인접촉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부정치효능감은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스웨덴과 일본에서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인의 경제·사회적 변수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덴마크와 일본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정부를 신뢰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를 신뢰하지만, 일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라 정부신뢰 성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중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에서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반면, 스웨덴에서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가족 수입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핀란드에서만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핀란드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신뢰에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동아시아 3국 모두 공통적으로 정부신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당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사적신뢰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외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표와 정치인정책선호, 일반신뢰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Uslaner, 2001; Gershtenson, 2006; Hetherington, 2005; Miller & Borrelli, 1991; Chanley, et al., 2000; Citrin & Green, 1986; Keele, 2007; Mishler & Rose, 200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 간에 분명한 차이가 발견된 것이다. 우선 스칸디나비아 3개 국가의 일반신뢰가 동아시아 3개 국가보다 높다는 것이고, 중국을 제외하고는 스칸디나비아 3국이 동아시아 2개국보다 정부신뢰와 사적신뢰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과 정부신뢰와의 관계에서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는 교육수준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과 중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일부 연구자들(Hibbing & Theiss-Morse, 1995; Johnson, 2005; Uslaner, 2001)의 주장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흥미롭다. 즉 정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가능성이 높은 교육수준이 높은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정부가 스칸디나비아 3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국가별로 서로 다르거나 독특하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 중국의 정부신뢰와 사적신뢰가 다른 5개 국가보다 특별히 높게 나타났다. 일본만의 경우, 정치인접촉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부정치효능감이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과 일본에서 네트워크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사회적 배경은 국가별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미치지 않기도 하며, 관련이 없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VI. 결론

21세기 행정 및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이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Kim, 2005) 적정 수준 이상의 정부신뢰는

필수적이다. 일반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정부는 정통성을 부여받음으로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Maloney 등(2000)은 정부신뢰가 사회 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으로 교육, 보건, 범죄, 복지, 경제성장, 정부성과가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발전과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La Porta 등(1997)은 정부신뢰가 효과적인 사법체계, 낮은 부패율, 정부관료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Guiso 등(2000)은 정부신뢰가 재정적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Zak과 Knack(2001)은 정부신뢰가 낮은 곳에서는 투자가치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신뢰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정부신뢰가 낮다는 것은 그 만큼 국가와 사회의 공정성이 떨어지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신뢰는 정부의 민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정부의 총체적 거버넌스를 위한 바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정부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요인은 다양한 연구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개발한 이론이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이론가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이론도 다수 존재한다. 정부 정책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외부정치효능감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Citrin & Green, 1986; Hetherington, 1998; Miller & Listhaug, 1990)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지만,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Almond와 Verba(1963), Boix와 Posner(1998), Easton(1975), Escobar-Lemmon(2010), Hibbing & Theiss-Morse(1995), Kaufman (1999), Levi와 Stoker(2000), Nye 등(1997), Pharr와 Putnam(2000), Tocqueville(1988), Putnam(1993; 1995), Ross와 Rothstein(2001) 등의 연구자들은 정치참여가 많은 시민일수록 정부신뢰가 높다고 밝히고 있지만, 다른 연구자들은(Dalton, 2004; Deth, 2000; Gamson, 1968; Inglehart, 1997; Kasse, 1999; Levi & Stoker, 2000; Muller, 1977; Norris, 1999; Ulbig, 2007) 정치참여가 정부신뢰를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정책선호에 있어서도 Chanley 등(2000), Citrin(1974), Citrin와 Green(1986), Gershtenson 등(2006), Hetherington(1998), Hetherington과 Rudolph(2008), Hibbing과 Theiss-Morse(2001), Miller와 Borrelli(1991), Norris(1999), Uslaner(2001) 등의 연구자들은 정부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 Alford(2001)는 정부신뢰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내부정치효능감에 있어서도 정부신뢰와 긍정적인 관계가 주장하는 연구자(Meer, 2010; Ulbig, 2008)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Norris, 1999; Hooghe, 2011)가 있다. 네트워크 역시 정부신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Delhey & Newton, 2003; Offe, 1999)도 있고 관계가 없다는 학자들(Hooghe, 2003; Paxton, 2002; Uslaner, 2002)이 동시에 존재한다. 특히 사회신뢰에 있어서는 이론가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Almond와 Verba(1963), Brehm과 Rahn(1997), Dalton(2004), Delhey와 Newton(2005), Fukuyama(1995), Inglehart(1997),

Levi(1996), Meer(2003), Newton과 Norris(2000), Newton과 Zmerli(2011), Paxton(2002), Putnam(1993), Rothstein(1998) 등은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수록 정부신뢰가 높다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Craig, 1993; Gibson, 2001; Kaase, 1999; Mishler & Rose, 2001; Newton, 1999; Newton & Norris, 2000; Newton & Zmerli, 2011; Norris, 1999; Orren, 1997; Uslaner, 2002; Wright, 1976)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있어서도 연구자들에 따라, 그리고 대상 국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동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6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당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정치인정책선호, 일반신뢰, 사적신뢰 등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에 스칸디나비아 3국과 동아시아 3국간에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점도 밝혔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기본적으로 정부신뢰를 비롯한 일반신뢰와 사적신뢰가 높았고, 한국과 일본은 정부신뢰, 일반신뢰, 사적신뢰 모두가 낮은 반면, 중국은 정부신뢰와 사적신뢰는 다른 모든 국가에 비해 높지만 일반신뢰가 낮게 나타났다. 스칸디나비아 3국과 일본에서는 교육수준과 정부신뢰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과 중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별로 특수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정부신뢰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 국가의 특성을 살펴보기보다는 대부분의 국가에 일반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를 하여온 기존 연구의 방향이 국가별 특성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국가별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은 추후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 한 번의 결과만으로 국가별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변수와 특별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밝혔다고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가 10년 전에 조사된 6개국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결과가 같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가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한 후 구조화된 설문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6개국에 대해 설문을 한 자료를 추후에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측정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이론적 논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의도한 연구목적은 달성하였다는 의미는 갖는다. 정부신뢰의 중요성이 나날이 중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를 점검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한국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이재혁. (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국, 미국 조사 비교. 「한국사회학」, 38: 203-235.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1): 87-112.
- Abramson, P. R. (1983). Political attitudes in America: Formation and change. San Francisco: Freeman.
- Agger, R., M. Goldstein, & S. Pearl. (1961). Political Cynicism: Measurement and Meaning. Journal of Politics, 23: 477-506.
- Alford, John. (2001). We're All in This Together: The Decline of Trust in Government, 1958-1996. In J.R. Hibbing & E. Theiss-Morse. (eds.)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mond, G. A., and S.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derson, Christopher J., and Yuliya V. Tverdova. (2001). Winners, Losers, and Attitudes about Government in Contemporary Democraci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4): 321-338.
- Axelrod, Robert.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aeck, Maria & Elina Kestila. (2008).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Trust in Finland : An Individual-level Assessment.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2(2): 171-194.
- Barber, B.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ianco, W. T. (1994). Trust: Representatives and constituent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jornskov, Christian. (2006). Determinants of generalized trust: A cross-country comparison. Public Choice, 130: 1-21.
- Booth, John A. & Richard, Patricia Bayer. (1998). Civil Society, Political Capital, and Democratization in Central America. The Journal of Politics, 60(3): 780-800.

- Brehm, J., and W.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999-1023.
- Campbell, Angus, Gerald Gurin, and Warren E. Miller. (1954). *The Voter Decides*. Evanston : Row, Peterson and Company.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Chanley, Virginia A., Rudolph, Thomas, and Wendy M. Rahn. (2000). The Origin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A Time Series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64: 237-57.
- Christensen, Tom, and Per Laegreid. (2005). Trust in Government: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Satisfaction, Political Factors, and Demography.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8(4): 487-511.
- Citrin, Jack. (1974).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973-988.
- Citrin, Jack, and Donald Philip Green. (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143-53.
- Craig, Stephen C. (1980). The Mobilization of Political Discontent. *Political Behavior*, 43: 189-209.
- Craig, Stephen G. (1993). *The Malevolent Leaders*. Boulder, Co: Westview.
- Dalton, R. J. (2004). *Democratic Challenges, Democratic Choices: The Erosion of Political Suppor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kker, Paul & Eric M. Uslaner. (eds). (2001).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 Delhey, J. & Newton, K. (2005). Predicting Cross-National Levels of Social Trust: Global Pattern or Nordic Exceptionalism?,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4): 311-327.
- Deth, Jan W. Van. (2000). Interesting but irrelevant: Social capital and the saliency of politics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7: 115-147.
- Easton, D. (1975).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suppor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 435-57.
- Elazar, Daniel. (1972). *American Federalism: A view from the States*. New York: Crowell.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 Press.
- Fuse, Kana, & Nanaho Hanada. (2009). Political Distrust and Gendered Attitudes: The Japanese State and Women. *Sex Roles*, 60: 843-858.
- Gamson, W. A. (1968). *Power and discontent*. Belmont, CA: Dorsey.
- Gershtenson, Joseph, Jeffrey Ladewig, and Dennis L. Plane. (2006). Parties, Institutional Control, and Trust in Government. *Social Science Quarterly*, 87(4): 882-902.
- Gibson, James L. (2001). Social Networks, Civil Society, and the Prospects for consolidating Russia's Democratic Transi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51-69.
- Glaeser, Edward L, Laibson, David I., Scheinkman, Jose A., & Christine L. Soutter. (2000). Measuring Trus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 811-.
- Guiso, L., Sapienza, P., & Zignales, L. (2000).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financial develop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W7563).
- Gupta, Vipin & Paul J. Hanges. (2004). Regional and Climate Clustering of Societal Cultures. In House et al. (ed),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The GLOBE Study of 62 Societies*, 178-218. Thousand Oaks: Sage.
- Hetherington, Marc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etherington, Marc J. (2005). *Why Trust Matters: Declining Political Trust and the Demise of American Liber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therington, Marc J., and Thomas J. Rudolph. (2008). Priming, Performance, and the Dynamics of Political Trust. *The Journal of Politics*, 70(2): 498-512.
- Hibbing, John R., and Elizabeth Theiss-Morse. (1995). *Congress as Public Enem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bbing, John R., and Elizabeth Theiss-Morse. (eds.) (2001). *What is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stede, Geert. (1997). *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Hill.
- Hofstede, Geert.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Sage.
- Hooghe, Marc. (2011). Why There is Basically Only One Form of Political Trust. *British Journal*

-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3: 269-275.
- House, Robert J., Paul J. Hanges, Masour Javidan, Peter W. Dorfman, and Vipin Gupta (ed). (2004).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The GLOBE Study of 62 Societies*. Thousand Oaks: Sage.
- Huntington, S.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77).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hnson, Iryna. (2005). Political Trust in Societies Under Transformation :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and and Ukrain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35(2): 63-84.
- Kasse, Max. (1999). Interpersonal Trust, Political Trust and Non-institutionaliz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22(3): 1-21.
- Kaufman, Jason. (1999). Three Views of Associationalism in 19th-Century American: An Empirical Examin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5): 1296-1345.
- Keele, Luke. (2007). Social Capital and the Dynamics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2): 41-254.
- Kim, Ji-Young. (2005). "Bowling Together" isn't a Cure-All: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Trust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6(2): 193-213.
- Knack, S, and P. Keep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35-78.
- Krishna, Anirudh. (2001). *Enha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mocracies: What is the Role of Social Capital?* Working Papers Series San 01-03. Terry Sanford Institute, Duke University.
- La Porta, R., Lopez-de-Silanes, F., Schleifer, A., & R. W. Vishny. (1997). Trust in large organiz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7. 333-338.
- Levi, Margaret. (1996). Social and Unsocial Capital: A Review Essay of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Politics and Society*, 24(1): 45-55.
- Levi, Magaret & Laura Stoker. (2000).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475-507.
- Li, Lianjiang. (2004). Political Trust in Rural China. *Modern China*, 30(2): 228-258.

- Macpherson, C. E. (1973). *Democratic theory: Essays in retriev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loney, W., Smith, G., & Stoker, G. (2000). Social capital and urban governance: Adding a more conceptualized 'top-down' perspective. *Political Studies*, 48: 802-820.
- Meer, Tom van der. (2010). In what we trust? A multi-level study into trust in parliament as an evaluation of state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6(3): 517-536.
- Miller, A., and S. Borrelli. (1991). Confidence in government during the 1980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4): 147-173.
- Miller, A., and O. Listhaug. (1990). Political parties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A comparison of Norway,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3): 357-386.
- Mishler, William & Richard Rose. (2001).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 30-62.
- Montero, Jose Ramon, Cunther, Richard & Torcal Mariano. (1997). *Democracy in Spain: Legitimacy, Discontent, and Disaffection*. Estudio/Working Paper/100.
- Mueller, John E. (1977). Changes in American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Involvement. In Ellen Stern, (ed.) *The Limits of Military Intervention*. (pp. 323-344), Beverly Hills, CA: Sage.
- Newton, Kenneth.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P.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169-187.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Newton, Kenneth, and Pippa Norris. (2000).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rmance? In Susan J. Pharr & Robert D.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ewton, Kenneth, and Sonja Zmerli. (2011). Three forms of trust and their association.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2): 169-200.
- Norris, Pippa.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Nye, J., P. Zelikow, and D. King. (eds.) (1997). *Why Americans mistrust governmen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Offe, C. (1999). How can we trust our fellow citizens? In M.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pp. 42-8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ren, Gary. (1997). Fall from Grace: The Public's Loss of Faith in Government. In Joseph S. Nye, Philip D. Zelikow, & David C. King. (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ige, Jeffery M. (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 810-820.
- Paxton, P. (2002).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54-277.
- Pharr, Susan J., and Robert D. Putnam. (eds.) (2000).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 664-683.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Pye, Lucian W. (1999). Civility, Social Capital, and Civil Society: Three Powerful Concepts for Explaining Asia.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29(4): 763-782.
- Ross, Ashley & Maria Escobar-Lemmon. (2010). The Price of personalizing politics: Political distrust and economic performance in Latin America, 1996-2006. *Electoral Studies*, doi: 10.1016/j.electstud.2010.11.012.
- Rothstein, B. (2001).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Politics and Society*, 29(2): 207-241.
- Rosenstone, Steven, and John Hansen.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American democracy*. New York: Macmillan.
- Rothstein, Bo & Eric M. Uslaner. (2005). All for All: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 41-72.
- Schoon, Ingrid, and Helen Cheng. (2011). *Determinants of Political Trust: A Lifetime Learning*

-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47(3): 619-631.
- Shi, Tianjian. (2001). Cultural Values and Political Trust: A Comparis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aiwan, *Comparative Politics*, 33(4): 401-419.
- Shyu, H. Y. (2008). Trust in Institution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aiwan.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2008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n Boston, MA, August 28-31.
- Stolle, Dietlind. (1998). Bowling Together, Bowling alone: The Development of generalized Trust in voluntary associations. *Political Psychology*, 19(3): 497-525.
- Tan, Soo Jiu-an & Siok Kuan Tambyah. (2011). Generalized Trust and Trust in Institutions in Confucian Asia. *Social Indication Research*, 103: 357-377.
- Tocqueville, A. de. (1988). *Democracy in America*. J. P. Mayer (ed.). New York: Harper & Row.
- Torpe, Lars. & Henrik Lolle. (2011). Identifying Social Trust in Cross-Country Analysis: Do we really measure the same? *Social Index Research*, 103: 481-500.
- Ulbig, Stacy G. (2007). Gendering Municipal Government: Female Descriptive Representation and Feelings of Political Trust. *Social Science Quarterly*, 88(5): 1106-1123.
- Uslaner, Eric M. (2001). Is Washington Really the Problem? In Hibbing, John R. & Elizabeth Theiss-Morse, eds. *What is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slaner, Eric. (2002). *Moral Foundation of Trus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ren, M. E. (ed.). (1999).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ng, Timothy Ka-ying, Po-san Wan, & Hsin-Huang Michael Hsiao. (2011). The bases of political trust in six Asian societies: Institutional and cultural explanations compared.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2(3): 263-281.
- Zak, P. J. & Knack, S. (2001).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111: 295-321.

기고일 : 2014. 4. 25.

심사일 : 2014. 5. 2.

확정일 : 2014. 6. 2.